

국방·방산 릴레이 회담 협력 폭 넓혔다

안 장관, 에스토니아와 천무 획득 MOU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의원단 접견
알제리 국방특임장관과도 처음 만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5(서울 ADEX 2025)'를 계기로 방한한 각국 고위급 인사와 릴레이 양자회담을 열어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안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먼저 양국이 지정학적·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2018년 에스토니아군의 K9 자주포 도입을 기점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된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에스토니아군 현대화 사업과 관련,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당부했다. 두 장관은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에스토니아의 천무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 ADEX 2025'를 계기로 방한한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도입에 대한 양국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합의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어 안제가 그집 위원장을 포함한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회 의원단을 접견하고, 국방·방산협력 확대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 장관은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국방위에서 한 만큼 양국 국방부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폴란드 하원 국방위 의원단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후속 이행계약 및 잠수함 사업 등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국제사

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역설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폴란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사이드 샹그리하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겸 합참의장과 양국 최초의 국방 장관회담을 개최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안 장관은 알제리가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1990년 수교 이후 기술·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샹그리하 특임장관은 '서울 ADEX 2025'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우리 방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올 초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국방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인적 교류 등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병노 기자



22일 오후 공군 김해기지 주기장에서 진행된 APEC 대비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항공특수통제사(CCT) 요원들이 테러범 제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윤청 기자

“APEC 정상회의 첫인상 김해국제공항 안전 이상 없다”

공군5비, 지원단 가동 체계적인 준비
무인기 탐지·식별·타격 24시간 가동
조류퇴치반 증원·주기장 포장 보강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이 될 김해국제공항의 '수문장' 공군5공중기동비행단(5비)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기사 6·7면

지원의 핵심은 완벽한 안전 확보다. 5비는 지난 4월부터 강근신(준장) 비행단장이 지휘하는 APEC 지원단을 가동해 △작전·훈련 △전력 보강 △시설·환경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 육군53보병사단, 부산경찰청, 부산지방항공청 등 유관기관과 수십 차례 합동훈련과 실무회의를 거치며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했다.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도 한층 강화했다. 5비는 평시 운용 중인

소형 무인기 탐지·식별·타격체계를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APEC 기간 육군·경찰과 공조해 이동형 드론 대응장비 등 합동 전력을 공항 주요 지점에 배치, 비인가 드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불법드론 비행지점을 분석해 집중 감시하고 비행금지 현수막도 설치했다.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조류퇴치반 인력을 증원했고, 한국공항공사 등과 '조류퇴치 대외협업팀'도 구성

해 24시간 지원체계를 완비했다.

대형 항공기 이착륙에 대비해 주기장의 아스팔트 포장 보강과 강도 평가도 마쳤다. 야간에 방한하는 대표단을 위해 항공등화물 고효율 LED로 전면 교체한 것은 물론 정전상황에 대비한 활주로 이동형 비상조명 설치훈련과 무정전원원공급장치(UPS) 추가 설치 등도 추진했다.

아울러 군의관·응급구조사 등의 의무요원을 증원하고 후송에 활용할 헬기 전력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인명 구조와 후송 능력을 강화했다.

임채무 기자